

김정은 정권의 대내외 정책평가와 우리의 대응방향

2013. 10

통일정세분석 2013-08

김정은 정권의 대내외 정책평가와 우리의 대응방향

2013. 10

박영자 (북한연구센터 부연구위원)

본 보고서는 전현준 선임연구위원의 주관 하에 개최된 통일연구원 제3차 「월례 북한정세토론회」(2013.6.4)의 발제와 토론 내용에 기초하고, 2013년 10월까지 전개된 최근 남북관계 상황 변화를 반영하여 집필되었습니다.

일 시 : 2013. 6. 4.(화), 15:00 ~ 19:00

장 소 : 통일정책연구협의회 사무소 (광화문 소재)

주 제 : 김정은 정권의 정치·외교적 생존전략과 우리의 대응 방안

목 적 :

- 김정은 정권 출범 1년의 정치·외교적 측면 결산 및 전망
- 박근혜 정부의 효율적 대북정책 방향 모색

참여자 :

- 사 회 : 전현준 전 북한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 발 제 : 김연수(국방대), 이희옥(성균관대)
- 지정토론 : 정성장(세종연구소), 권양주(KIDA), 박병광(국가안보전략연구소)
- 정부부처 : 김창현(통일부 정세분석국 과장), 김인혜(통일부 사무관)
- 내부토론(6월 직위 기준): 전성훈 북한연구센터 소장, 정영태 선임연구위원, 박형중 선임연구위원, 전병곤 통일학술정보센터 소장, 이기현 부연구위원 등

목 차

I. 서론	1
II. 김정은 정권의 정책수행 환경	3
1. 대내 환경	3
2. 대외 환경	7
III. 김정은 정권의 대내외 정책	9
1. 대내 정책	9
2. 대외 정책	16
IV. 결론 및 제언	20
1. 김정은 정권의 특징과 평가	20
2. 전망과 대응방향	21
<부 록>	23

표 목 차

<표 1> 김정은 ‘우상화’ 강화 동향	23
<표 2> 노동당 주요 회의 및 결정	27
<표 3> 주요 군부인사 동향	28
<표 4> 젊은 세대 강조 및 등용	29
<표 5> 제3차 및 제4차 당대표자회 시기 당인사	29
<표 6> 대외 개방 시도 현황	31
<표 7> 최근 3년 북한의 품목별 對中 수출 동향	32
<표 8> 탈북자 입국현황	32
<표 9> 김정은의 파격적 대중정치 행보	33
<표 10> 2012 및 2013. 9월 현재 현지도 현황	33
<표 11> 재입북 탈북자 방송출연 기자회견	34

I. 서론

- 김정은은 2012년 4월 이후 북한의 최고권력자로 대내외에 공식적으로 등장
 - 군최고사령관 직책 획득('11.12.30)
 - 노동당 제1비서, 정치국 위원 및 상무위원, 당중앙군사위원장 등 지위 확보('12.4.11.)
 -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취임('12.4.13), '공화국 원수' 칭호 획득('12.7.18)

- 북한은 후계자 선임 전후로 이데올로기와 통치구조 측면에서 세습 절대권력 확립을 위해 제반 수단 동원
 - 유일사상체계 및 유일영도체계로 3대 세습
 - 김정은 후계 정당화 위한 각종 조직활동 및 선전 작업 진행
 - 2012년 이후 3대 수령으로 김정은 통치력 강화 위한 정책 추진

- 김정은의 부족한 정치경력과 업적, 어린 나이로 야기되는 통치환경의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해 정당화와 우상화 사업 집중
 - '위대한 수령'으로 떠받드는 김일성의 통치 이미지와 카리스마 모방
 - 유훈 통치로 김정일의 선군정치와 핵 중시 노선 지속
 - '사상이론의 천재', '위대한 군사전략가'라는 등 교육선전 사업 강화

- 권력엘리트 인사정책에서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권력재편 정책을 답습하며 동시에 신진 세대 중용
 - 권력안정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친·인척 중용, 빨치산 및 그 후손 우대, 노·장·청 배합 등 전통적 방식 고수

※ 권력엘리트 세대교체 추이: 50~60대 당·군·정 중앙권력 실세
로 중용, 실무단위에 30~40대 청장년층 배치

- 대외 정책은 핵무기를 통한 체제 안전보장 전략, 대미 유인외교, 중국과 미국에 대한 이중적 외교 등을 구사
 - 핵을 지렛대로 미국을 협상테이블로 유인 시도
 - 북미관계 진전 가능성을 중국의 대북지원 확대 수단으로 인식
 - ※ 미국 유인 외교 및 對 中·美 이중적 외교 시도

- 대남 정책은 전통적 강온 대응 전술을 지속하면서 회담 주도권 장악 시도
 - 이명박 정부에 대한 강경책에 이어 박근혜 정부에 대한 공격적 발언
 - 개성공단 가동중지 후 강경 전술 펼쳤으나, 남한의 대화제의를 전격 수용하여 개성공단 재가동
 - 이산가족 상봉합의 등 온건 전술을 펼쳤으나,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사건', '이설주 추문관련 의혹 보도' 등을 빌미로 상봉연기 및 대남 공세
 - 강온 전술로 남한당국을 혼돈시키면서 남북 관계를 주도하려는 의도
 - ※ 1970년대 이래 남북회담서 북한의 밀고 당기기는 지속적인 대남 전술이나,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이후 그 강도가 높아졌고 변화주기도 빨라지는 양상

- 그러나 북한의 강온전술은 정책 실행 혼선과 정권의 불안정성 문제를 야기하는 바, 김정은 정권의 대내외 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가 필요
 - 김정은 집권 후 장거리 미사일 발사, 3차 핵실험, 대외 군사위협, 개성공단 일방적 중단 등 일련의 강경 공세

- 군총참모장, 인민무력부장 등 군부 최고직위의 잦은 인사교체
 - 리더십 문제 및 경험 부족 등에 따른 정책혼선 여부와 정권의 불안정성에 대한 재평가 필요
- 본 보고서는 김정은 정권의 대내외 정책수행 환경과 정책내용을 평가하고 향후 전망 및 우리의 대응방향을 제시

II. 김정은 정권의 정책수행 환경

1. 대내 환경

가. 새로운 통치이념 제시 필요

- 김정은은 권력의 정당성 및 통제력 강화를 위해 새로운 통치이념을 제시할 필요
 - 김일성은 주체사상, 김정일은 주체사상에 입각한 선군사상
 - 김정은도 원활한 통치를 위해 절대권력 사상인 주체사상과 체제수호를 위한 선군사상을 벗어나지 않은 범위에서 독자적 사상 제시 필요
- 김정일이 사회주의권 붕괴시기에 내놓았던 ‘우리식 사회주의’와 같은 체제 수호적 이념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
 - 북한의 현 상황에서 개혁·개방과 같은 신(新)사고가 필요하나 체제 유지가 무엇보다 우선

- 기존의 수령 절대사상 보다 ‘애민사상’*이 통치에 적합한 상황
 - 경제난 지속, 시장화 진전되는 형국
 - ‘자본주의 황색바람’이 지속적으로 북한에 유입
 - * 주체사상과 수령관의 일부로 수령이 인민의 삶을 돌보고 덕을 베풀어야 한다는 수령 품성론의 일종

나. 김정은 정권 안정화 장치 필요

- 김정은식 수령체제 확립이 긴요한 상태
 - 경험이 적은 1984년생* 김정은은 28세(2012년)에 수령 지위에 추대
 - 당·군·정 관료의 충성과 주민의 복종을 어떻게 견인해 내느냐가 ‘유일영도체제’ 유지의 관건
 - * 김정은 출생연도에 대해서는 1982년설, 1983년설, 1984년설 등이 있으나 1984년설이 가장 유력¹⁾
- 간부 인사는 권력 안정의 초석
 - 김일성 시대부터 간부 등용 문제는 가장 중요한 정치 사안
 - 간부 충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며 대중성이나 실력은 다음 순위
 - 충성심이 강한 친·인척과 빨치산 및 그 후예들의 등용이 관례
- 기존 간부 등용정책을 고수하되 김정은 시대에 맞는 젊은 간부 등용 필요
 - 현재 핵심 권력엘리트 대부분이 김일성-김정일 시대에 등용된 인물로 고령화, 젊은 패기 부각해야 할 김정은 시대에 맞지 않는 측면

1) 김정은의 스위스베른공립중학교 재학시기 여권에 1984년 1월 8일생으로 기록됨.

- 경제난이 일반주민 뿐 아니라 중·하급 관료에까지 영향을 미쳐 생계형 관료부패 및 주민 불만 점증
 - 부패척결 선언에도 불구하고 부패가 일상화되고 지하경제가 국가경제의 한 부분으로 성장

다. 대량살상무기 개발 지속과 군부통제 필요

- 김정은 역시 핵무기,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미국의 압박 저지를 위한 필수 요소로 판단
 - 미국이 최대 위협요소라는 정세 인식은 김일성 시대부터 지속
 - 핵무기 개발과 핵위협 전략을 통해 미국을 압박하여 북미 평화협정과 북미 수교 등 미국의 양보 획득 시도

- 수령유일체제 유지 및 인민 경제생활의 안정화를 위해 지나치게 비대화된 군을 통제할 필요성 대두
 - 지지자·충성자들에게는 시혜를, 반대자들에게는 가혹한 책벌을 가하는 강온 양면책 구사
 - 정권유지의 핵심세력인 군부에 의존하는 ‘선군정치’ 계승이 불가피하나, 각종 이권이 집중되어 비대화된 군부를 일정 부분 통제할 필요
 - 군부 관료의 ‘군기잡기’, 군부의 경제이권 중 일부를 당·내각으로 이전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을 우선시하는 정책은 지속
 - 김정일 시대보다 다소 약화되었으나 군사를 중심에 둔 정치는 지속
 - 對美 대결국면에서 안보우위론으로 무장한 군부역할은 지속

라. 경제난 타개방안 필요

- 對中 광물거래를 통한 외화유입으로 경제난이 더 악화되진 않으나, 경제성장 담보로 일반 주민과 군인의 생활고는 개선되지 않음
 - 만성적 경제난이 지속되어 경제적 일탈행위, 불만, 부패 등 점증
 - 특히 장애인과 노약자 등은 인권사각지대

- 경제난 타개를 위해 황금평 등 신(新)특구 지정, 중국 등으로부터의 해외투자 증대를 원하나 핵문제, 개발계획 차이*로 인한 중국의 미온적 태도로 큰 진전 없는 상황
 - * 중국은 태평양 진출의 기점인 나진·선봉과 청진 등을 중심으로 한 동해안 라인의 발전계획을 원하고, 북한은 신의주와 황금평 등 서해안 라인의 발전계획을 원함

- 내부 경제관리 개선과 중국의 대북투자 유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김정은 정권은 어떤 형태로든 이 두 문제를 해결해야 함

마. 사회일탈 방지책 보완 필요

- 만성적 경제난으로 주민의 불만·사회일탈·탈북이 지속됨에 따라, 사회통제를 강화할 수밖에 없는 실정

- 그러나 정권유지는 통제만으로는 불가능한 바, 유연한 정책도 동시에 필요
 - 김정은 정권은 통제와 함께 새로운 비전 제시와 사회분위기 일신 필요

- ‘광폭정치’*와 ‘인덕정치’가 요구되는 상황

* 김정일 시대에 개념화한 수령정치의 일종으로 인민들을 넓은 이량과 애정으로 품어 안는 정치

2. 대외 환경

가. 북미 관계 담보

-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장거리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들과 협력하면서 이를 지속적으로 공론화 및 문제화
- 북한은 ‘핵실험 강행 및 대화시도’라는 전통적 방식의 이중적 대미협상 전략을 구사하고 있지만 미국이 이에 응하지 않고 있는 실정
- 현재 미국은 유엔을 통한 대북 제재를 고수하고 있는 바, 북미 직접 협상을 통해 체제 안전보장을 추구하는 북한의 시도는 정체 상태

나. 북중 관계의 신(新)국면

- 북한의 전통적 맹방인 중국은 3차 핵실험 강행에 대한 불만이 증대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 ‘북한책임론’도 제기된 상태
 - 북핵 저지를 구실로 동북아에서 활발한 미군의 활동, 일본의 군사대국화 움직임에 대한 우려 증가
- 중국이 장거리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에 대한 유엔안보리 제재에 동참하고 있는 바, 북한은 중국의 경제제재를 완화시키기 위해 對中 관계 개선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입장

- 북중 무역은 북한의 경제적 생명선으로 작용
 - 중국의 6자회담 복귀 압력에 어떤 형태로든 조응해야 하는 상황
- 그러나 중국 입장에서 볼 때, 북한의 붕괴나 북미관계 개선으로 인한 북한의 對美 경도를 방지하지는 않을 것
 - 중국은 대북 정치·경제적 최소 지원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

다. 남북 관계의 주도권 약화

- ‘남한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시도한 대남 강경정책이 남한주민의 대북 민심 이반을 초래
 - 핵개발 및 각종 대남 도발로 남한 국민들의 대북 불신 증대
- 한국은 한미동맹 강화와 한중 전략적 협력 외교로 북한의 對美 ‘통미 봉남’ 전술 무력화 및 중국의 한반도 정책에 미세한 변화 견인
 - 북한의 대남 주도권이 점점 약화되고 있는 실정

Ⅲ. 김정은 정권의 대내외 정책

1. 대내 정책

가. 유일 지도사상인 ‘김일성-김정일주의’

※ 주체사상·선군사상 등의 통치이념 또는 정책기조가 아닌 지도자 인물주의의 전면화

- 다수 중하층 북한주민 및 주변국의 기대와 달리, 김정은 정권은 신(新)통치이념으로 개혁적 사상을 내세우지 않음
- 기존의 개인독재를 유지·답습하는 보수적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채택
 - 2010. 9월 개최된 3차 당대표자회의 노동당 규약 전문(前文)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표기
 - 2012. 4월 4차 당대표자회의 노동당 규약 전문에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한다고 표현 변화
 - 2013년 현재 모든 공식행사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핵심 슬로건으로 제시
- 김정일보다 과감한 개인독재 체제 선언
 - 본래 주체사상의 정수는 ‘혁명적 수령관’으로 사실상 ‘김일성주의’이나, 1974년 주체사상을 김일성주의라고 명명한 김정일조차 이 표현은 자제

- 김정은은 이를 노동당 전문에 표현함으로써 충성심 과시 및 정권안정에 활용
- 이는 수령독재와 지도자 유일사상을 바탕으로 한 세습체제의 확고화 의미
 - 주민들의 변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으로 향후 반응을 주목할 필요
- 한편 김정은은 ‘인민생활 향상’ 기치를 2012~13년 모든 행사와 북한 공식매체를 통해 선전
 - 김일성 생일 100주년 기념 열병식 육성연설, “다시는 인민이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겠다”, “내게 소중한 것은 총알보다 쌀알”이라는 기조 발언(12.4.15)
 -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이하 경제·핵 병진노선)’ 발표(13.3.31), 국방비를 증가할 필요가 없어졌으며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 집중하겠다는 의지 선언
 - * ‘답론 정치’로 주민들을 위무하고 김정은 정권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고취하려는 정책행위

나. 정권 공고화 위한 ‘선당(先黨) 정치’와 세대교체

- 각종 매체를 통해 김정은을 ‘위대한 영도자’로 만들기 위한 노력, 다양한 신화창조에도 몰두
 - “GPS를 활용한 포병술의 대가”, “3살 때부터 명중사격”, “탁월하고 특출한 영도자”, “위대한 영도자” 등 김정은의 위대성 강화와 다양한 신화 창조
 - * (부록 <표 1> 김정은 ‘우상화’ 강화 동향)

- 김정은은 김정일과 구별되는 개인독재 리더십 구축을 위해 선군정치를 계승하되 당의 지도적 역할도 복원하려고 노력
 - 김정일에 비해 조선노동당의 공식기구와 제도를 통한 공개적·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주력
 - 특히 당중앙위 정치국을 핵심 정책결정 기구로 활용
 - * (부록 <표 2> 노동당 주요 회의 및 결정)

- 정권 안정화에 가장 중요한 사안인 ‘군부 길들이기’
 - 김정일의 선군정치로 비대해진 군부 견제를 위해 '12년 최룡해('13.10월 현재 총정치국장, 당 정치국 상무위원), 김원홍('13.10월 현재 국가안전보위부장, 국방위 위원) 중용
 - 군부통제를 위한 리영호 총참모장 해임('12.7월)
 - 현재까지 인민무력부장, 총참모장 등 군부 고위직의 잦은 인사 교체 및 계급 강등·원상 복귀를 통해 군부 통제 시도
 - * (부록 <표 3> 주요 군부인사 동향)

- 새 정권 및 새 시대에 맞는 세대교체 진행
 - 젊은 세대의 중요성 강조, 당·정·군에 젊은 간부 등용 시작
 - 당 권력엘리트의 평균연령이 70대 초반이던 '12년 집권 이후 상황에서, 정치국과 비서국에 50~60대 간부들 배치
 - 핵심 실무진에 40~50대 초반까지인 1960~70년대 생 등용
 - * (부록 <표 4> 젊은 세대 강조 및 등용)

- 그러나 김정일 정권 말기인 3차 당대표자회('10.9.28)와 김정은 정권 초기 4차 당대표자회('12.4.11)에 평균나이 70대 초반인 노년층 고위인사 다수
 - * (부록 <표 5> 제3차 및 제4차 당대표자회 시기 당인사)

- 권력 안정을 위해 백두산과 만경대 혈통으로 세습되는 혈족계 측근 배치 지속
 - 백두산 혈통으로 고모 김경희, 고모부 장성택, 이복 누나 김설송, 손위 형 김정철, 여동생 김여정 등이 핵심
 - 측근연합의 또 다른 한축으로 만경대혁명학원 출신 최룡해 등 빨치산 2~3세들을 요직에 배치
 - ※ 군부통제를 위해 김정은을 중심으로 한 노동당의 지도성 복원·세대교체·세습 측근연합 지속

다. 선군정치와 핵무기 개발 지속

- 미국의 적대시 정책에 대응하여 장거리 로켓 개발과 핵 무장력 강화가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인식 및 행동 고수
 - ‘피포위’ 상황 돌파를 위해 군의 강력한 지지가 필요하기에 선군정치 지속
 - 헌법 개정 통해 핵보유국 명시(’12.4.13)
 - 3차 핵실험 단행하며 핵무기의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 주장(’13.2.12)
 - 최고인민회의 법령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하여” 채택(’13.4.1)
 - ※ 이를 통해 내적으로 정권 안정화, 외적으로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압박 완화 및 대북지원에 대한 협상력 강화를 의도
- 이러한 행동은 국제사회의 반발을 야기하여 고립이 심화되고 있으나 ‘경제·핵 병진노선’(’13.3.31)을 통해 핵무력 증강 의지 피력

라. 부분적 개방과 복중 교역 확대

- 인민경제 분야에 대한 공적 투자는 증대하지 않음
 - ‘경제·핵 병진노선’은 핵무력이 재래식 무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절감하여 인민경제발전을 촉진한다는 논리
 - 그러나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13.4.22)에서 예산 증대가 논의되지 않음으로 실행 가능성은 의문

- 자력갱생 노선의 한계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외자유치를 위한 제한적인 대외 부분 개방도 시도
 - 인민들이 스스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자력갱생 정책으로는 경제난 타파에 한계
 - * (부록 <표 6> 대외 개방 시도 현황)

- 중국에 광물자원을 대량 수출하여 통치자금으로 활용
 - 평양, 단장(丹粧) 등에 각종 대형 국책사업 실시
 - 중국에서 수입한 식량 및 생활필수품의 배급을 확대
 - * (부록 <표 7> 최근 3년 북한의 품목별 對中 수출 동향)

- 총체적으로 자력갱생 정책 지속²⁾과 부패가 체제운영의 핵심 제도로 작동
 - 전반적인 주민생활은 빈국 상태를 면치 못하는 상황
 - 특히 중하급 관료나 군부의 경제적 부패는 지속적 상승 추세

2) 김정은은 전국단위 경공업 대회(’13.3.18) 연설을 통해 원자재의 해외 의존도가 높다며 ‘수입병’을 질타하였음.

마. 사회통제와 회유 병행

- 탈북통제의 강화와 시장통제의 완화, '6.28 방침'* 등 경제개선조치의 부분적 실시로 주민 경제사정 다소 호전
 - 이에 따라 탈북 등 사회일탈이 저하
 - * '우리식의 새로운 경제관리체계를 확립할 때 대하여'(12.6.28)의 핵심 내용은 분조규모 축소, 생산량 초과분 개인소유, 공장기업소 이익분배, 3·7제 분배
 - * (부록 <표 8> 탈북자 입국현황)

- 제도적 사회통제와 동시에 순응하는 주민에 대한 '광폭정치' 실시
 - 체제 순응자에게 상대적 자유 보장, 주민 위락시설 확충 등
 - 사회분위기 전환을 위한 김정은의 파격적 대중정치 행보*
 - 핸드폰 보유 확대(약 200만 대 보급된 것으로 추산)
 - * (부록 <표 9> 김정은의 파격적 대중정치 행보)

- 군 관련 현지도와 함께 인민생활 향상에 주력한다는 이미지 강조를 위해 경제 분야 현지도 강화
 - 롤러스케이트장 등 위락시설, 마식령 스키장 건설
 - * (부록 <표 10> 2012 및 2013. 9월 현재 현지도 현황)

- 재입북한 탈북자를 이용한 탈북자 재입북 유도
 - 재입북 탈북자에게 '김정일 광폭정치'를 원용, "1%의 양심을 믿어야 한다"면서 각종 혜택 제공 등 관용정책 과시
 - 재입북 탈북자의 방송출연을 통한 대남 비방
 - * (부록 <표 11> 재입북 탈북자 방송출연 기자회견)
 - ※ 채찍과 당근으로 대중을 분리통치

바. 대규모 정치행사 및 경제회생 노력 부각

- 대규모 대중 정치행사를 통한 체제결속, 인민친화적 정권 표방
 - '13 하반기의 7·27 전승절, 9·9 정권수립일 등을 기점으로 중앙보고대회, 대규모 열병식 및 군중대회, 기념관 건립, 공연 및 전시회 등 진행
 - 편의위락시설, 살림집 건설, 문화예술 공연관람 등으로 인민친화성 과시

- 경제회생 의지
 - '13.7월 이후 내각 총리 박봉주 등과 함께한 경제현장 현지지도 빈도 증가
 - '마식령 속도 창조'

- 외자유치 홍보
 - 『경제개발구법』 제정 등 외자유치 법제정비('13.5.29)
 - 나선 국제상품전('13.8.19~20), 북한 주재 대사관 대상 관광유치 설명회 진행('13.8.24), 무역대표단 장춘 중-동북아 박람회 참석('13.9.4)
 - ※ 김정은 정권의 대중 정치적 정당성 강화 의도

2. 대외 정책

가. 對美 이중정책과 북미 관계 담보

- 강온(強溫) 양방향으로 이중적 대미 정책
 - '12년 '2·29 합의'와 동시에 로켓발사로 미국의 혼란 가중
 - 유엔 안보리 제재에 반발하는 동시에 북미 비밀대화('12.4월, 8월) 추진

- '13년 핵실험 이후에도 이중적 대미정책 지속
 - '12.12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 후 '13.2월 핵실험을 전후로 대미 강경 공세
 - 영변 핵시설 재가동 등 대미 압박을 지속하면서 동시에 6자회담 재개 및 고위급 회담 제안 등
 - 지속적으로 미국과 회담 모색 및 유도

- 그러나 미국의 직접대화 회피 및 대북 압박정책 지속으로 북미 관계는 단시일 내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
 - 미국은 북한의 각종 합의 파기 및 핵실험 등 근거로 북미 직접대화 회피, 국제공조 통해 북한을 압박
 - '13.3월 한미연합 독수리 훈련시 B-52, 핵잠수함, B-2 등 각종 첨단 무기를 동원,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강한 억지력 시위
 - 특히 대북 압력을 위한 중국과의 공조 강화
 - ※ 북한이 비핵화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북미 관계가 단시일 내 복원되기는 어려울 것

나. 북중 관계의 변화와 지속

- 전통적 맹방인 중국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감행한 미사일 및 핵실험은 중국을 무시하는 행동
 - 북한에 대한 불만이 높아진 중국은 대북제재에 동참, 북중 무역 및 은행거래 통제 등 저강도 경제제재를 실시하며 북한을 압박
-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13.5~6월 최룡해, 김계관 등 파견'
 - 중국은 비핵화와 6자회담 복귀 요구 등으로 대북 압박,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지도부는 북한의 핵보유 반대입장 천명
- '13년 현재 북중 관계는 혈맹관계가 아닌 동맹수준의 양자 관계로, 상호 신뢰도 또한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추세
 - 그럼에도 중국은 여전히 전통적 대북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바, 성급한 '중국의 북한포기론'은 경계할 필요
 - 중국은 '3불(전쟁 불용, 혼란 불용,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 불용), 1무(비핵화)' 원칙 고수
- 북한은 최룡해 방중을 계기로 6자회담 참가의지 피력 등 양자교류 활성화
 - 최룡해 방중 시 시진핑에게 김정은의 친서전달('13.5.22~24)
 - 김계관 방중('13.6.18~22), 김성남 방중('13.7.2~7)
 - 중국 리위안차오 부주석, 북한의 전승철(7.27) 계기 방북('13.7.25~28)
 - 중국 우다웨이 방북, 김계관 등 면담('13.8.26~30)
 - ※ 상호 신뢰도는 과거에 비해 낮아졌으나, 중국에게 북한은 여전히 국가이익의 주요 요소, 북한 또한 대내외 측면 모두에서 중국과의 동맹 관계 지속이 중요

다. 대남 강온 양면정책의 전환 수위 상승

-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강경책을 구사했으나, 일관된 신뢰프로세스에 막혀 목적 달성에 실패하자 유화책으로 전환
 - 북한은 초기에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실체를 알기 위해 박근혜 정부 비난 자제
 - 이후 개성공단 일방적 잠정 폐쇄 및 박대통령 실명비난(’13.5.25이후) 등 강공책 동원
 - 강공책이 통하지 않자 남북 당국 대화를 수용(’13.6.6)하여 국면전환 시도

- 이후 남북 대화의 주도권을 잡기위한 밀고 당기기 지속,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관광 재개 등 현안에 대한 협상의지 표명
 - 개성공단 남북당국 실무회담 7차례 개최(’13.7.6~8.14)
 - 7차 회담에서 공단중단 재발방지와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 방안 합의(’13.8.14)
 -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전체회의와 분과위원회 개최 등으로 제도 개선 방안 및 재가동 일정 등 협의
 -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 통해 금강산관광 재개 위한 당국 실무회담 금강산에서 개최 제안(’13.8.18)

- 남북 당국 대화를 식량 지원 등 물질적 보상과 연계하려는 의도
 - 대화 국면에서 진행될 각종 행사에 대한 물질적 보상 요구
 - 이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도 해당

- 대화국면에서 물질적 보상을 실현하기 위한 매개자 역할이 가능한 민간차원의 남북 교류 채널 가동
 - 남북 불교계 접촉('13.8.17~22, 중국 심양)
 - UN Youth Leadership Program(YLP) 참가('13.8.22~9.3, 전남 광주)
 - 아시아클럽역도 선수권 대회 남한 선수단 초청 참가('13.9.12~17, 평양)

- 이산가족 상봉 관련 밀고 당기기
 -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에서 이산가족 상봉 합의서 채택('13.8.23)
 - 주요 합의 내용은 9.25~30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남북 각각 100가족) 및 10.22~23 화상상봉 실시(남북 각각 40가족)
 - 그러나 조평통 대변인 성명을 통해, 남한 정부가 남북대화를 동족 대결에 악용하고 있다며 연기 통보('13.9.21)

- 실명 비난을 포함 박근혜 정부에 대한 비난은 9월 이후 급증하였고 10월 들어 일상화
 - ※ 대남정책 또한 강온 양면 이중정책을 구사, 김정은 정권에서 군사적 긴장조성의 수위 및 강도가 강화되고, 정책 전환의 시간도 짧아지는 경향
 - ※ 이산가족 상봉은 전체적으로 대남 온건정책 방향의 현 국면을 바꿀 정도의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
 - ※ '13년 최룡해 방중 이후 북한의 대남정책이 전체적으로 온건 방향으로 선회하였으나, 세부 협상시 정책 변동성이 크고 변화주기도 짧은 경향

IV. 결론 및 제언

1. 김정은 정권의 특징과 평가

가. 정책 부문별 특징

<이념> : 개혁적이기 보다는 보수적인 ‘김일성-김정일주의’, 주체사상-선군사상을 의인화하여 선대의 후광을 활용

<정치> : 정권 안정화 위해 친인척 및 빨치산 후예 등용, 세대 교체 진행, 군부 ‘길들이기’ 등 조치

<경제> : 인민생활 향상을 기치로 한 경제회생 행보 강화, 군부의 경제이권일부를 당·내각으로 이전

<군사> : 군사적으로 미사일 및 핵능력 제고

<사회> : 주민일탈 방지 위한 사회통제, 인민친화적 행보

<외교> : 對美 정책은 공격과 유인 교차, 對中 정책은 무시와 동맹 양존

<대남> : 강공과 유화 혼합 전술로 주도권 장악 시도

나. 평가

- 북한사회 전체 시스템 운영의 불안정성 속에 김정은 정권의 권력구조는 안정적
 - 정권이 자리잡아가는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발생하는 시기
 - 젊은 김정은의 빠른 정책 결정과 추진으로 체제운영의 불안정한 측면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김정은 정권은 안정적으로 정착되는 중
 - 당·군·정 관료 내부와 북한 사회 내에 특별한 조직적 저항 부재
- 종합 평가
 - 정책적 측면에서 김일성·김정일 시대의 정책 기초를 유지하는 속에 신(新) 통치 이념 및 전술 개발 중
 - 김정은 정권은 불안정성이 존재하는 가운데 정착되어 가는 모습

2. 전망과 대응방향

가. 주요 사안별 전망

- <대내 정세> : 주요 행위 주체인 사회집단(인민)·군부·김정은(지도자) 등이 특별한 변화의 모습 보여주지 않는 상황
: 단기간 내 북한에 큰 변화 발생하기 어려울 것
- <핵 정책> :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변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바, 핵무기 개발 전략을 포기할 가능성은 희박

<6자회담> : 북한은 6자회담 복귀를 논하면서 시간 끌기 전술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

: 당분간 회담 재개 전망은 낮으며, 회담이 재개되어도 ‘핵군축’ 및 ‘평화체제 구축’ 등을 주장할 것으로 보임

<대남정책> : 남북관계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관철할 것으로 전망

: 대남 통일전선전술 등을 통한 전통적인 대남정책을 고수할 것

나. 우리의 대응 방향

- 첫째, 김정은 정권이 불안정한 것은 사실이나 권력구조상 단기적으로 붕괴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대북 정책 추진
- 둘째, 김정은 정권의 자발적인 핵포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중장기 차원에서 북한사회의 변화와 연계된 북핵폐기 추진
- 셋째, 유엔 등 국제사회와의 외교적 공조와 더불어 비정부기구 등을 활용한 다차원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북한 변화를 견인
- 넷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기반한 남북관계의 주도권 확보 및 북한의 변화를 견인하기 위한 전략·전술에 기초한 남북접촉 추진

<부 록>

<표 1> 김정은 ‘우상화’ 강화 동향

날짜	발표	내용
2009.	김정은 우상화관련 문건 (일본 마이니치 신문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정은의 김일성군사종합대 포병학과 졸업 논문은 “위성항법장치(GPS)를 활용해 포사격 정확도를 높이는 방법” ◦ “김정은이 대학 시절 포병 지휘관에 이어 연구원까지 5년 과정을 전 과목 최우등으로 졸업할 만큼 포병전에 능하다”고 선전
2009. 하반기	노동당 중앙당 간부와 당원 대상으로 한 교육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정은을 청년대장동지로 칭하며 “고대로부터 근대에 이르는 세계의 정치, 군사,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 해박한 지식을 소유”, “10대에 벌써 동서고금의 세계적인 명장들에 대해 다 파악”, “3살 때부터 명중사격을 했다.” ◦ “김일성군사종합대학 시절에 한다하는 군사인들이 한생을 다 바쳐도 다 터득하지 못한 보병, 포병은 물론 공군과 해군을 비롯한 군중, 병중, 전문병 분야에 완전히 정통하시고 전군을 지휘통솔 할 수 있는 뛰어난 령군술을 남김없이 보여주셨다” ◦ 김정은 찬양가요 발걸음 가사 전문 등장
2010.10.10.	조선중앙방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세출의 령도자를 맞이한 우리 민족의 행운> 정론 방송 ◦ “정치·경제·문화·역사·군사 등에 정통하며 여러 개의 외국어를 구사하는 천재”라고 선전 ◦ “2년간의 해외 유학 기간 동안 영어·독일어·프랑스어·이탈리아어를 숙달”
2011.1.28.	우리민족끼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정은 생일을 “1월 명절”로 처음 언급 ◦ “1월 8일 올해의 첫눈이 내렸다. 우리 인민은 새해의 첫 문을 열자마자 대장 복 넘치는 1월 명절을 맞이하게 됐으니 이런 행운이 또 어디 있겠는가”

날짜	발표	내용
2011.5.11.	조선중앙방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화 <민족 최대의 명절 2월 16일>에 김정은 우상화를 위한 정치 구호 등장 ◦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와 존경하는 김정은 대장동지를 위하여 한목숨 바쳐 싸우자!”는 글귀 발견 ◦ 공연 장면에서는 김정은 찬양가요인 ‘발걸음’ 연주와 합창 모습 등장, ‘발걸음’ 가사를 수놓은 수예작품 소개
2012.1.4.	노동신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군님과 함께 헤치시며 성장하신 김정은 동지는 모습도 기상도 수령님 그대로이시고 장군님 그대로이시다”며 “그이의 신념은 백두산악과 같이 억척불변”이라고 3대 세습의 정당성 주장 ◦ “최강의 정예대군을 휘하에 거느린 또 한분의 위대한 선군령장”이라며 “조선을 세계가 우러러 보는 강대하고 부흥하는 강성대국으로 안아올릴 탁월하고 특출한 실력가형의 영도자”로 강조
2012.1.5.	우리민족끼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정은을 “사상이론의 천재”로 칭송하며 “16살에 군사전략가로 세상에 널리 알려진 김일성 주석의 영군술과 그 업적에 대한 다방면적이고도 종합적인 논문을 대작으로 완성해 만 사람의 경탄과 존경을 불러일으켰다”고 주장 ◦ “특히 군사분야에 관한 그이의 독창적이고 비범한 사상이론은 그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최상의 경지”라고 칭송
2012.1.8.	조선중앙방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정은 생일에 맞추어 <백두의 선군혁명 위업을 계승하시어>라는 제목의 50분짜리 기록영화 방송
2012.11.13.	노동신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군혁명령도를 이어가시며』 1권 출간 ◦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은 우리 민족의 반만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과 어버이장군님 그대로 뛰어난 천품을 지니신 위인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선전

날짜	발표	내용
2013.1.7.	노동신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생일을 하루 앞두고 그가 “쪽잠과 췌기밥(주먹밥)으로 전선길을 이어갔다”고 주장하는 등 김제1위원장 우상화를 극대화 ◦ “쪽잠과 췌기밥”이란 표현은 그동안 북한 매체들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우상화를 위해 자주 사용했던 것으로 북한 당국이 우상화 용어까지 대를 이어 사용
2013.2.20.	조선신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북한)에서 김정은 원수님의 영상을 모신 우표가 처음 발행” ◦ “신년사를 하시는 최고 영도자의 영상을 담은 우표가 발행되는 것은 근 70년에 달하는 조선우표 역사상 이번이 처음 되는 일”
2013.4.14.	노동신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일성 생일날을 맞아 국제사회과학연구소에서 김정은에게 사회정치학 박사 칭호를 수여했다고 14일 주장 ◦ “태양절에 즈음하여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 국제적으로 권위있는 학위를 수여해드린 것은 원수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신심 드높이 백두산대국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나가고 있는 천만군민에게 위대한 령도자를 높이 모신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더해주고 있다.”
2013.7.17.	노동신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정은 원수칭호 1주년과 관련하여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로 높이 모신 1돛을 맞는 지금 온 겨레는 조선민족의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깊이 새겨안고 있다.”고 보도 ◦ “우리 겨레는 운명도 미래도 모두 맡기고 따를 민족의 위대한 태양, 조국통일의 구성을 모시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계시기에 민족자주위업, 조국통일위업의 전도는 양양하다.”

날짜	발표	내용
2013.7.17.	조선중앙통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정은 노작을 캄보디아에서 단행본으로 발간한 것에 대해 “김정은동지께서 주체101(2012)년 4월 15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탄생 100돐 경축 열병식에서 하신 연설에는 김일성민족의 100년사는 탁월한 수령을 모셔야 나라와 민족의 존엄도, 강성번영도 있다는 철의 진리를 뚜렷이 확증해준 력사이라는 데 대해 밝혀져 있다” 며 칭송
2013.8.1.	조선중앙방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주의 보건제도는 행복한 삶을 누리는 가장 인민적 보건제도’라며 ‘대원수님들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이라고 칭송 및 ‘김정은 원수님을 모시어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더욱 강화 발전되고 있다’고 선전
2013.8.13.	조선중앙통신 논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개관’ 관련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영도와 군대·인민의 애국충정이 낳은 자랑스런 결실, 나라의 보물고, 혁명의 만년재보’라고 선전
2013.8.23.	조선중앙통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정일의 선군영도가 시작된 날(선군절, 8.25)이 있어 공화국은 불패의 존엄과 위력을 떨치며 강성번영의 한 길로 전진할 수 있었다고 칭송하며, 김정일의 선군혁명업적은 김정은에 의해 빛나게 계승·발전되고 있다고 강조
2013.9.8.	노동신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 정권 수립(9.9) 65돐 경축 중앙보고대회 ◦ ‘김일성·김정일의 ‘인민의 나라 창건과 강성번영의 만년궤도를 열어준 업적’ 찬양 및 “두분의 태양을 모신 조선, 또 한분(김정은)의 절세의 위인을 받들어 올린 공화국의 앞날은 휘황찬란하다”고 自祝

<표 2> 노동당 주요 회의 및 결정

회의 및 일시	주요 결정 내용
제3차 당대표자회 2010.9.28.	김정은을 김정일 후계자로 내정(당중앙군사위 부위원장)
당 정치국 확대회의 2011.6.11.	김정일 방중 결과 설명, 북중관계 강화 결의
제4차 당대표자회 2012.4.11.	김정은을 당 제1비서로 추대, 김정일을 영원한 당총비서로 추대,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유일지도사상으로 채택, 당 규약 개정/최고 및 중앙지도기관 선거·조직·임명 결과 발표
당 정치국 회의 2012.7.15.	리영호 총참모장 해임
당 정치국 확대회의 2012.11.4.	국가체육위원회 설치 결정, 위원장에 장성택 임명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 2012.12.3.	군사력 강화 및 조직문제 토의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 2013.2.11.	‘공화국창건 65돐과 조국해방전쟁승리 60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맞이할 데 대하여’ 등 10개 항목 결정서 채택(김일성·김정일을 영원한 수령으로 받들기 위한 일 심화·완성 외 9개 항목)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2013.3.31.	경제·핵무력 발전 병진노선 채택, 박봉주 정치국원 진입(4월 1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총리 내정)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 2013.8.26.	국방력 강화 및 조직문제 논의 (“조성된 정세의 요구와 인민군대의 현 실태로부터 출발해 혁명무력의 전투력을 더욱 높이고 나라의 방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기 위한 실천적 문제들”이 토의 결정됐으며 조직 문제도 논의)

<표 3> 주요 군부인사 동향

직책	인사 내용(확인날짜)
인민군 총정치국장	조명록 ▶ 김정각 제1부국장이 대행 ▶ 최룡해('12.4)
인민무력부장	김일철 ▶ 김영춘 ▶ 김정각('12.4) ▶ 김격식('12.12) ▶ 장정남 ('13.5.14/ 동년 8월 대장 승진)
인민보안부장	리명수 ▶ 최부일('13.2. 대장에서 상장으로 강등 → '13.6.10. 대장 복귀)
총참모장	리영호 ▶ 현영철('12.7. 등용 → '12.10. 대장강등 →'13.6.3. 상장강등) ▶ 김격식('13.5.22.) ▶ 리영길(전 작전국장, '13.8.)
부 총참모장	오금철 ▶ 최부일('12.4.) ▶ 김격식('12.11.19. 상장에서 대장 으로 복귀 → '13.2. 소장 강등 → '13.4. 중장 복원 / 현재 김 영철이 겸직)
국가안전보위부	김원홍('12.4)
정찰총국장	김영철('12.11. 대장에서 상장 강등 → '13.2.26. 대장 복귀) ※ 정찰총국장이 총참모부 부총참모장을 겸직
총참모부 작전국장	김명국 ▶ 최부일 ▶ 리영길(전 5군단장, '13.8. 대장 승진) ▶ 변인선('13.8. 추정)

<표 4> 젊은 세대 강조 및 등용

일시	내 용
2012.1.25/26.	김정은, 청년동맹 중앙위원회, 김일성고급당 학교 등에 친필 서한 발송, '청년들의 역할 강조'
2012.2.3.	김정일 청년 영예상 및 소년 영예상 제정
2012.6.4.	소년단 창립 66주년 기념 2만여 명의 소년단 대표 평양 방문
2012.7.4.	'청년동맹 대표자회' 개최
2012.8.28.	청년절 경축대회: 1만여 명의 청년 대표 핫불 행진
2012.10.13	만경대·강반석혁명학원 설립 65주년 서한 발송: 혁명학원 학생들은 당의 아들딸이며, 나의 아들딸들임을 강조
2012.10.26.	인민군 중대 청년동맹 초급단체위원장대회
2012.12.21.	노동신문, 주체교육 터전에서 마음껏 배운 우리 주인공들의 나이는 30-40대라고 주장
2013.5.3.	장정남(50대) 인민무력부장 등용
2013.6.6	조선소년단 7차대회 참가: 조선소년단 규약 개정

<표 5> 제3차 및 제4차 당대표자회 시기 당인사

	2010.9.28.(3차 당대표자회)	2012.4.11.(4차 당대표자회)
상무위원	1. 김정일(사망, 2012.12.17.)	1. 김정은
	2. 김영남	2. 김영남
	3. 최영림	3. 최영림
	4. 조명록(사망, 2010.11.6.)	4. 최룡해(신임, 승진)
	5. 리영호	5. 리영호(해임, 2012.7.11.)
위원	6. 김영춘	6. 김경희
	7. 전병호(명단 빠짐)	7. 김정각(신임, 승진)
	8. 김국태	8. 장성택(신임, 승진)
	9. 김기남	9. 박도춘(신임, 승진)
	10. 최태복	10. 김영춘

	2010.9.28.(3차 당대표자회)	2012.4.11.(4차 당대표자회)
	11. 양형섭	11. 김국태
	12. 김석주	12. 김기남
	13. 변영립(명단 빠짐)	13. 최태복
	14. 리용무	14. 양형섭
	15. 주상성(소환, 2011.3.16)	15. 강석주
	16. 홍석형(소환, 2010.6.6)	16. 리용무
	17. 김경희	17. 현철해(신임)
		18. 김원홍(신임)
		19. 리명수(신임)
후보위원	18. 김양건	20. 오극렬(신임)
	19. 김영일	21. 김양건
	20. 박도춘(승진)	22. 김영일
	21. 최룡해(승진)	23. 태종수
	22. 장성택(승진)	24. 김평해
	23. 주규창(명단 빠짐)	25. 문경덕
	24. 리태남(소환, 2011.4.7)	26. 광범기(신임)
	25. 김락희(명단 빠짐)	27. 김창섭
	26. 태종수	28. 로두철(신임)
	27. 김평해	29. 리병삼(신임)
	28. 우동측(명단 빠짐)	30. 조연준(신임)
	29. 김정각(승진)	
	30. 박정순(사망, 2011.1.22)	
	31. 김창섭	
32. 문경덕		
	사망 3명, 탈락 8명, 승진 4명	신임 8명, 승진자 포함시 12명

<표 6> 대외 개방 시도 현황

일시	내 용	비고
2011.11.12.	나선경제무역지대법 전면적으로 수정·보충	
2012.1.9.	北-中 경제·무역·과학기술협조위원회 제7차 회의 개최: 양국간 경제무역관계 확대·발전 성과, 나선경제무역지대·황금평경제구 관리위원회 건설 논의	
2012.1.30.	외국인투자기업 관련법 수정·보충(재정관리법 10개장 72개조, 회계법 4개장 59개조 개정)	
2012.8.14.	북·중간 황금평, 위화도 및 나선경제무역지대 개발 합의(제3차 조·중 공동지도위원회)	
2012년 말	원산 관광특구 지정, 원산 갈마비행장을 국제 비행장화, 마식령 스키장 건설	2006년부터 현대아산이 금강산-원산 연계 관광 준비
2013.1.7~10.	美 구글 대표단 방북: 김일성종합대학 도서관, 조선컴퓨터센터 방문	
2013.3.31.	김정은, 각 도에 경제개발구 설치지시	
2013.5.29.	북한, 경제개발구법 제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2013.6.7.	황해남도 강령군에 국제금융과 첨단산업 등의 경제특구 건설계획	일본 지지통신 발표
2013.7.6~7.9.	‘월프리트 램케’ 개발과 평화를 위한 지역 담당 유엔사무총장 특별고문과 일행이 방북하여 마식령스키장 건설장 등 체육시설을 참관	
2013.8.19~20	나선 국제상품전	나선 지역
2013.8.24.	관광설명회 개최: 관광지구들을 특구로 운영, 국경통과·세관·세금·통신·투자보호 등	양강도 호텔

일시	내 용	비고
	은 해당 특구법과 국제적 기준에 따라 진행될 것, 투자기업·합영·합작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허용할 계획	
2013.9.4	중-동북아 박람회 참석	북한 무역대표단

<표 7> 최근 3년 북한의 품목별 對中 수출 동향

(단위: US\$천)

구분(HS코드)	2010	2011	2012
광산물(25-27)	678,832	1,604,735	1,600,632
철, 비철금속(72-83)	183,566	246,549	200,269
섬유제품(50-63)	190,311	422,302	453,113
수산, 축산물(01-05)	59,830	83,197	101,255
총계	1,112,539	2,356,783	2,355,269

출처: K○TRA, 『2012년 북-중 교역동향』(2013.4.9.);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최근 북-중 경제협력 동향과 전망』(2012.6.11.)

<표 8> 탈북자 입국현황

년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13.9월
남자	423	512	571	608	671	589	797	405	250
여자	959	1,510	1,977	2,197	2,258	1,813	1,909	1,097	791
합계	1,382	2,022	2,548	2,805	2,929	2,402	2,706	1,502	1,041

* 북한이탈주민 입국인원은 보호결정을 기준으로 집계('13.10.29 현재)

출처: 통일부 정착지원과,

<<http://www.unikorea.org/CmsWeb/viewPage.req?idx=PG0000000166>>

(검색일: 2013.10.29).

<표 9> 김정은의 파격적 대중정치 행보

일시	내 용
2012.4.6.	북한, 외신기자들에게 광명성 3호 발사(4.13) 취재를 위한 입북허용
2012.4.15.	김정은, 첫 육성 공개연설
2012.6.28.	'6.28 방침'과 이후 시범실시
2012.7.6.	모란봉악단 연주회에 미키마우스 캐릭터와 미국영화 '룩키'주제가 등장
2012.7.25.	김정은 부인 리설주 공개, 팔장끼기 및 화려한 의상 착용
2013.3.1.	김정은 미국 농구선수 로드먼과 농구경기 관람
2013.7.28.	김정은 정전기념일에 외신기자들과 첫 접촉
2013.9.3.	미국 농구선수 로드먼 재방북 및 농구경기 관람(9.7)

<표 10> 2012 및 2013. 9월 현재 현지도 현황

순위	2012년 (총 151회)			순위	2013년(총 154회, 9.30 현재)		
	분야	비율	횟수		분야	비율	횟수
1	軍	34.4%	52회	1	경제	31.2%	48회
2	경제	21.2%	32회	2	軍	29.9%	46회
3	사회·문화	21.2%	32회	3	사회·문화	19.5%	30회
4	기타	12.6%	19회	4	정치	10.4%	16회
5	정치	8.6%	13회	5	기타	7.1%	11회
6	대외	2.0%	3회	6	대외	1.9%	3회

출처: 통일부, 「김정은 공개활동 현황」, 2013. 10.

<표 11> 재입북 탈북자 방송출연 기자회견

일시	매 체	인물	내용
2012.6.28.	조선중앙통신	박정숙	탈북자들은 남한사회 저주, 북한으로 돌아가길 원해
2012.11.	조선중앙TV	김광혁, 고정남	남한 생활에 환멸
2013.1.25.	조선중앙통신	김광호 외 3명	
2013.5.17.	조선중앙통신	강경숙, 리혁철, 김경옥 *리혁철은 4월 연평도에서 단독입북	돈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썩어빠진 남한 사회, 합심과정에서 고문
2013.6.21.	조선중앙TV	로정영, 류철용 등 9명 *라오스에서 5월28일 강제북송	남한이 유인납치
2013.9.30	조선중앙통신	박진근, 장광철	<p>박진근은 돈에 눈이 어두워 중국으로 갔다 2011년 10월 한국으로 왔으나, 이후 남한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2013년 7월 북한으로 재입북.</p> <p>장광철은 2012년 3월 한국에 입국하였다가 2013년 4월 ‘당제4차 세포비서대회 시 김정은 연설’ 듣고 재입북 결심하였다고 함.</p> <p>* 이들은 남한의 북한 인권문제 제기를 언급하면서 이것은 북한의 일심단결을 파괴하려는 기도에 따른 것이라고 말하였음.</p>

회원가입신청서				
성 명		입금자 (입금일자)		
근 무 처				
	직 위			
간 행 물 받을 주소	(우편번호 :)			
연 락 처	전 화		내선 전화	
	핸 드 폰		FAX	
	전자메일			
전 공 및 관심분야				
회원구분	학생회원 ()	일반회원 ()	기관회원 ()	
<p>본인은 통일연구원의 연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p> <p> 20 년 월 일</p> <p> 신청인 (인)</p>				

※ 본 신청서를 보내주십시오.
(우142-728) 서울특별시 강북구 4·19로 123(수유동)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전화: (02)901-2559, FAX: (02)901-2547 E-Mail: pcm@kinu.or.kr

※ 신한은행 온라인 140-002-389681 (예금주: 통일연구원)

김정은 정권의 대내외 정책평가와 우리의 대응방향

통일정세분석 2013-08

발행처	통 일 연 구 원
편집인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서울특별시 강북구 419로 123(수유동) 전화 : 02-901-2525 팩스 : 02-901-2544
인쇄처	(주)예원기획 전화 : 02-745-8090
인쇄일	2013년 10월
발행일	2013년 10월



서울특별시 강북구 4·19로 123(수유동) 통일연구원
전화 : 900-4300(代)